그 사람 지금은

(31) 배종열 前 전국농민회의장 〈상〉

6월 항쟁 주역…'정치 유혹' 뿌리치고 농민운동 전념

6월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 광주전남국민운동본부의 대표로 87년 당시 금남로에서 대중 연설을 했던 배종열(75)씨.

6월 항쟁의 주역으로서 정치권의 숱한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농부로 돌아가 농민생산자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배종열씨를 만났다.

배씨는 지난 1978년 전남기독교농민회 초대회장(2대 회장 연임)을 맡아 4년 가까이 전남지역 기독교 농민운동의 기틀을 다졌으며, 1981년부터 84년까지는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초대·2대 회장을 역임했다.

81년부터 4년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지냈던 그는 1985년 광주로 내려왔다. 당시 광주에는 '전남사회운동협의회(전사협)'가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전사협에서 농민위원장 겸 공동대표(최성호·전계량·문병란)를 맡는다.

4·13호헌조치가 발표되기 전부터 전두환이 개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지역운동 연합체인 '전사협'은 87년 초 화순 동곡 모임에서 통일적인 연합운동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범도민운동본부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때 윤강옥씨 등

87년 범도민운동본부 결성

'호헌 철폐' 첫 광주집회 주도

지역운동 지도자들이 범국민운동조직체를 제안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민청연' 의장이던 김근태(전 열린우리당 의장)씨를 비밀리에 만난다. 범국민운동체의 필요성은 이미 서울에서도 절감하고 있어 쉽게 협의가 됐다.

그러나 서울측에서는 전국의 역량이 미흡함을 이유로 들어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5·18민중항쟁 7주기에 맞춰 조직을 결성해주길 원했다.

"87년 5월 초야, 서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호헌 철폐운동을 하자는 거였어요. 광주에 민주헌법쟁취 범도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운동을 벌이자는 것이었지."

당시 광주에는 배종열이 이끌어 있던 전남사회운동협의회(나중에 민중운동협의회로 이름을 바꾼다)와 고 홍남순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민주회복국민회의'가 있었다.

그는 홍남순 변호사를 찾아가 양 단체가 공동으로 민주헌법쟁취 광주전남운동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하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홍 변호사는 각종 시국사건으로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단체의 후배들이 다칠까봐 상당히 고민했다고 한다. 특히 배종열이 이끄는 단체의 이름(전남사회운동협의회)이 사회주의를 연상시키는 데다 그의 과격(?) 이미지 탓에 일부 종교계가 참여를 꺼린 것도 한 이유였다고 한다.

결국 전사협을 중심으로 한 범도민운동본부의 출범이 5월 18일 망월묘지에서 선포되자 그곳에 모인 1천500여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5·18추모식후 시민들은 가두시위를 벌였다.

약 력

▲1933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출생
▲전남기독교농민회 초대, 2대 회장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초대, 2대 회장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및 광주전남본부 상임의장
▲전국 농민회총연맹 3, 4대 의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무안채소산업발전연합회 회장

범도민운동본부는 유동 YWCA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배종열은 상임대표를 맡는다.

"범도민운동본부는 5월23일부터 29일까지 남동성당에서 개헌국면의 투쟁방향을 협의했고, 27일 전국본부의 출범에 즈음해 '민주헌법쟁취 범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전사협을 중심으로 5월단체, 문화계, 가톨릭 등 종교계, 각 대학총학생회 등 21개 단체 연합조직으로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운동 조직이었어요."

6월 항쟁 첫날인 10일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시위가 날이

1991년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집회 도중 경찰에 연행되는 배종열씨〈가운데〉.

갈수록 거세진데다 26일 국민대행진이 가까워지자 홍남순 변호사가 이끄는 재야인사들의 모임인 '민주회복국민회의'도 광주전남본부에 참여한다. 이로 인한 본부 재편에 따라 배종열은 상임의장을 맡게 되고, 고문으로 홍남순 변호사를 비롯해 조비오·조아라·윤기석씨가 참여한다.

그는 아직도 6월 항쟁 첫날인 10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한다.

"집회는 오후 2시 금남로 옛 중앙교회 앞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낮에만 해도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오후 2시가 되니까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연단에 올라가 대회사를 하는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을 시작하더라구. 하지만 저녁까지 금남로는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29일까지 매일 집회가 열렸지요."

문익환 목사·이해찬 前총리 국회진출 권유

일언지하 거절…고향 무안서 농민운동

6월 항쟁 이후 그는 1989년에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그 이후 전국농민회를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1992년부터 2년 동안 전국 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을 연임(3~4대)했다.

사회 운동에 일생을 바치다시피 한 그이지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정치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 80년 후반 사회운동에 매진했던 정상용, 박석무, 김영진 전 의원들보다 정치 참여의 조건은 한층 좋았지만 정치는 멀리했다.

당시 이해찬 전 총리는 물론 문익환 목사도 국회 진출을 권했지만 그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무안군양념채소류유통사업영농조합 대표이사와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회장, 무안채소산업발전연합회 회장. 농민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의 이력들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광주 신창동 유적지

옹관묘·벼껍질층·칠기 등 발굴

2천년前 영산강 문화 한눈에

운암산에 올라 북서편을 바라보니 극락강이 감도는 신창지구다.

본디 마지(馬池)면이었다가 1914년 모신(매결)과 선창의 이름을 따 신창(新昌)이 됐다. 월봉과 황우봉 사이로 호남고속국도와 1번국도가 뻗어있고, 두 길 안이 '주막샘골'이다.

보건대학과 광주교원연수원 어귀로 영산강 문화의 표본실인 신창동 유적지다. 2천여년 전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된 타임캡슐은 1960년 처음 개봉됐다. 바로 53구의 옹관묘로 담양 봉산면 제월리 양회채의 제보가 단초였다. 1990년대에는 다양한 생활유물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등허리 언덕과 강 사이는 중생대 흑운모화강암층 위에 제4기의 충적층이 바탕이다. 홍수 때마다 토사가 쌓인 범람원(汎濫原)으로 걸진 땅이다. 일찍이 벼농사가 이뤄져 생산력이 높아 큰 동네가 형성됐다.

들판은 강변 높드리 땅인 자연제방과 산기슭 오미(쏘)인 배후습지가 있다. 신창동 유적은 기원전 1세기 경에는 마을 앞 배후습지였다. 이 늪지에 주민들이 버린 생활도구들이 큰물이 지면서 한꺼번에 흙모래가 덮쳐 묻힌 결과물이다. 즉 적갈색 황토사질층이 흑갈색 유기물층을 감싸서 보존된 저습지 유적이다.

1997년 신창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옻칠절판.

국립광주박물관은 5차례의 발굴 작업의 결과를 2003년까지 보고서로 담아냈다. 당대 농경생활문화의 첨단 유물들이 소개돼 있다. 그 중 압권은 155㎝ 두께의 벼껍질층과 탄화곡물이다. 현·타악기를 비롯하여 베틀 바디, 수레바퀴, 칠기, 인골도 중요 유물이다.

특히 목재에 옻칠을 한 것은 문화수준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다. 그 중 4절과 5절판은 오늘날 그릇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극락강을 옛날 '칠천(漆川)'이라 칭했던 내력을 짐작케 한다.

이밖에도 발화구, 신발골, 실감개, 목검과 칼집, 낫자루, 소쿠리, 싸리비, 자리방석, 어망추, 참돔과 멧돼지뼈, 호도와 오이씨, 소나무와 오리나무 꽃가루, 편충과 회충알과 함께 많은 토기류도 수습됐다.

1992년 572번지일대 38,436㎡면적이 사적 제375호로 지정됐다. 사적지 근처 땅이름도 주목해본다. 토탄이 났다고 붙인 탄(炭)동, 소택지임을 말해주는 팔자·번개·밀련툼벙과 비개쏘다.

현재 광주박물관 선사실에 100점이 전시돼 있다. 당시 발굴현장 주역이었던 조현종 관장은 "광주의 오리진, 광주문화의 자존심, 최고의 하이테크 유적"으로 소개하면서 행정가였던 이종일과 이계표의 도움을 술회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